

모든 인연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하)

한다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명상을 통해 나를 관조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약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모두 내겐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며 스승이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보였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차츰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 줄일 수 있었고 아예 108배나 명상을 통해 흐트러지려는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초월하기 힘들었다. 특히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집안이 힘든데 무슨 마음공부를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며 명상이나 열불마저도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번은 개혁을 앞두고 큰 아이를 미장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난감했다. 남편에게 지원을 냈더니 남편은 대꾸도 않고 나가버리고, 난 돈 만원을 없어 이런 공상을 떨며 살아야 하는 내 처지가 한심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배개가 훌쩍 젖도록 울고 또 울었다. 당시 생계가 걱정이던 판에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다 무슨 소용인가! 절에 다니고 싶어도 돈도 없고 여유도 없던 내게, 그 순간은 종교도 사치처럼 느껴졌고 다 귀찮게만 느껴졌다. 이런 내 기운을 알았는지 아이들이 셋이서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놀기만 했다. 부정 한번 부리지 않고 크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내가 클 때보다 더 귀찮은 생활을 하는 애들 생각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때쯤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혹시나 하고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왜 왔냐며 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대꾸도 없이 마당으로 나가더니 “연화야, 우리 공주님, 아빠가 머리 잘라줄게”하며 아이들을 불렀다. 난 어이가 없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아빠, 아빠가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하며 좋아서 우르르 나왔다. 남편은 의자에 큰 아이를 앉히고 보자기를 어깨에 둘러 주더니 정말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큰 아이는 속도 모르고 아빠

가 머리를 잘라준다는 소리에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두 녀석들은 깔깔거리며 무엇이 그리 좋은지 턱을 괴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돈이 없어 미장원에 못 데리고 가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역으로 아이들은 신나는 이벤트인양 즐거워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들은 신이 나 있고 나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아빠,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럼, 우리 공주님, 아빠가 최고로 예쁘게 잘라 줄게.” “아! 우리 아빠 최고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108배·명상통해 마음 관조하는 법 배워 궁핍한 생활 속에도 행복 있음 깨달아 욕심도 번뇌도 친구로 여기며 살아갈뿐...

덜덜 떨고 싶어 난 바둑이까지 명명 짓어 대며 강종강종 뛰고 다니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난 내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이었던지, 나는 오늘 왜 그토록 절망했는지 의아해 했다. 내가 만일 오늘 돈이 있어 미장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만 들 추억은 없었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은 평생 보기 힘든 이벤트를 가진 것이다. 돈이 없는 것 자체는 물론 슬프고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슬퍼만 할일도, 괴로운 것만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많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다섯 식구는 아직도 한 방에서 살고 있다. 좁은 방에서 다섯 식구가 자다 보니 아이들이 밤잠을 설치기가 일수다. 그렇지만 한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니 가족애도 남다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작은 아이는 내 품을 찾아온다. 나는 아이의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아이는 내 체온을 느끼며 만족해한다. 얼마 전 아이들 방 공사를 시작해서 며칠 후엔 완성이 된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자기에 방 꾸밀 생각이 부쩍이 있고 남편과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선물해 줄 수 있어 행복하고 모처럼 부모노릇 한번 한 것 같아 뿌듯하다. 남편에게 당연한 일 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소중한 걸 깨닫고 느끼고 있다. 우리에게 돈이 많았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조건이나 실체가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는 순간 진정한 행복도 자유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돈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자기 눈높이와 다르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손 땀을 흘리며 으레 화가나고 했는데 이러한 성찰을 계기로 그 뒤에는 빨라지면서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거창하게 불교란 어떤 종교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순 없지만 불교라는 종교가 파국으로 치달을 뻔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건져 낸 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리라. 불교의 힘은 부처님께 어떤 것을 바라고 비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의 불성을 깨우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그 무엇을 일 것이다.

나는 주기적으로 절에 가지도 않고 심재 일도 챙기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난 내 종교가 불교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불자라는 생각이 나를 뿌듯하게 한다. 요즘 나는 번뇌에 시달리다 지치면 <금강경>을 읽거나 잠시 번역자제로 좌선을 한다. 혹 <법구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보기도 한다.

가족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는 상대방의 사진을 걸어놓고 108배를 하며 하심하라고 노력하기도 한다. 부처님께 혹은 관세음 보살님께 무엇을 빌거나 매달려 보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뿐 집착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한 줌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이전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불법은 내 삶의 전부다.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 불법을 떠나서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이 든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 준 부모님과 언니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돈이나 그 어떤 물건을 물려주신 것보다도 나에게 불법을 알게 해준 것이야말로 진정 나에게 값진 재산이 될 것이다.

지금의 순간 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살이라는 칭호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분이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 조카와 맺은 모자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 전 전화 통화에서 언니는 그 어떤 동요나 흔들림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렇지만 그 차분함의 뒤에 숨겨져 있을 언니의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온다. 염주를 돌리는 내 손이 빨라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가 같이 빨라진다.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조카와의 인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소중한 인연에 대해 감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카나 언니 모두에게 내 기도가 힘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불법의 인연을 맺고 나니 어려운 일도 두려운 일도 많이 없어졌다. 두려움이나 겁을 내기 전에 난 모든 것을 근본자리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녹이고 자비로 감싸고 보듬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참나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껴본다.

그렇지만 난 아직도 하고 싶은 일도, 바라 는 것도 많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다. 특히 두려운 일 때문인지 참회가 부족 해서인지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은 좀처럼 풀기가 힘이 든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통도 번뇌도 모두 사라질 것 같지만 난 나에게 대한 모든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지런을 떨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욕심도 번뇌도 친구로 여기다 보면 앞에서는 것 또한 모순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 열마나 웃고 울며 살아가게 될까? 혹 울어야 할 일이 웃어야 할 일보다 많을지도 모르겠다.

웃음도 눈물도 난 여유로움으로 맞고 싶다. 그래서 내가 혹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더라도 좋다는 생각, 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불법으로 승화시켜 내 남은 모



그림 · 문병성

든 업장과 같은 근본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싶다. 내가 중년이 되고 할머니가 되어 죽음을 맞을 때도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싶다. 떠날 때

기약할 수 없으나 세상에 태어난 그 때처럼 떠날 때도 천진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떠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리라. 불법은 그런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며 나의 든든한 벗이 되어 줄 것이다.(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같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제 46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엄청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결심돌린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여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5월 28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안마을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민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망정사서울군자법당**
수행 중심 교육도량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카구 4층
☎ 문의 전화: 02)456-4994, 0035(백스점음), http://cafe.daum.net/sorisan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안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친도제(49재)나 각종 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다도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장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장,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영산범음집 한문본 증정)

영산범음집매집 카세트. 비디오와 상용천도집. 영산범음집 한문본을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들이 많은 원안매력이 있습니다.

☎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규주 이판양)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 개인상담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세미나를 실시합니다.

- 불안증 및 공포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횡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개인상담 : 전화예약에 의한 상담 실시
◎ 세 미 나 : 수시모집 및 교육 실시

◆ **상담지도전문가**
설기문 박사 :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 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치료",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기가 참 쉽다" 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201-1102호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indcoach@naver.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가피업은 신비의 달마도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협장